

화순군,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내년 4월 30일까지

안전한 접종 위해 대상자·연령대별 순차 진행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최근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생후 6개월~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취약계층(▲14~64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장애인·국가유공자 본인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돌봄근로자 ▲다문화가정) 등이다. 특정 기간 출퇴근 현상을 막기 위해

대상자 및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는 오는 20일부터 ▲임신부는 10월 2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은 10월 11일부터 ▲70~74세는 10월 15일부터 ▲65~69세는 10월 18일부터 위탁의료기관(34개소)에서 접종받을 수 있다.

또한, 군은 국가예방접종 대상이 아닌 건강 취약 저소득층과 면역력

이 낮고 감염 시 합병증 발생이 높은 군민(▲14세~64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장애인·국가유공자 본인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돌봄근로자 ▲다문화가정 등)을 위해 10월 21일부터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서 무료 접종을 지원한다.

예방접종 시 어린이는 주민등록번호·예방접종수첩, 임신부는 산모수첩이나 임신 확인서 등 신분증과 자격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은 주

소지 관계없이 전국 지정의료기관에서 내년 4월 30일까지 접종할 수 있으며, 지정의료기관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미라 보건소장은 "겨울철 인플루엔자 유행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참여해 달라"며, "안전한 접종을 통해 지역사회 내 인플루엔자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민수 기자

장성군, 민선8기 후반기 '인구·돌봄' 집중

장성군이 민선8기 후반기 '인구·돌봄' 분야 정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해 사람이 모여드는 장성,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을 만들 계획이다.

오는 10월로 예정된 가족행복센터(장성을 영천로 199-10) 개관이 그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하 1층, 지상 3층, 바닥 면적 900평(2957㎡) 규모로 읍시가지에 위치해 활발한 이용이 예상된다. 지하층은 댄스연습실과 밴드연습실을 갖춰 청소년기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꾸몄다. 1층에는 키즈카페와 장난감 대여점, 공동육아 나눔터 등을 구성해 아이와 부모가 이용하기 편하도록 배려했다. 2층은 여성회관과 가족센터, 3층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드림스타트 등 복지기관이 들어서 수요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삼계면 삼계고등학교 인근에 건립해 서부권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한다. 학

교, 상무대 아파트와 가까워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좋다. 지상 2층 규모에 커뮤니티룸, 방과후교실, 강의실, 동아리실, 노래연습실, 영화감상실 등을 갖춘다.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다.

북부지역 보육 공백을 해결해 줄 '백양사역 키즈레일 어린이집'도 실시설계 단계다. 백양사역 인근에 바닥 면적 300㎡ 규모로 지을 계획이며, 아이들의 건강을 고려해 친환경 자재를 사용한다.

'장성공원'도 기대를 모은다. 지난 달 장성공원 자연 생태 놀이터가 산림청 유아숲 체험원으로 정식 등록됐다. 장성 최초 사례로, 국비 지원을 받아 다양한 숲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분야 지원도 주목된다. △전남 최초 '청소년 수당' 지급 △대학생 학자금 지원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을 통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유광중 기자

담양군, 시책 발굴 보고회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최근 군청 송강정실에서 '2025년도 시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담양군이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 시책을 발굴해 담양군이 직면한 다양한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접근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보고회에는 이병노 군수를 비롯한 각 부서장과 공무원들이 참석해 부서별로 발굴한 새로운 시책들을 발표하고 토론했다.

보고회에서는 △부자농촌 구현, △담양형 향촌복지 실현, △문화 및 관광산업 진흥,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군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일 방안들을 모색했다.

이병노 군수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제안된 시책들이 담양군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드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제안된 시책들이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담양군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시책들을 바탕으로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과제들을 선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시책 발굴 과정에서 나온 군민의 목소리를 반영,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구현할 방침이다.

/최종민 기자



나주시는 최근 초등학생 등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관·경 합동으로 '아이 먼저'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개최하였다. /나주시 제공

나주시, '아이 먼저'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최근 초등학생 등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관·경 합동으로 '아이 먼저'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개최하였다.

이날 8시 20분부터 8시 50분까지 나주 중앙초등학교 정문 횡단보도에서 실시된 이번 캠페인에는 나주경찰서,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5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일단 멈춰, '아이 먼저' 보내주세요"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캠페인은 운전자들을 상대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배려 운전을 유도했다.

또한, 어린이들에게는 신호를 기다릴 땐 한발 뒤로 물러서기,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면 좌우 살피기, 뛰지 않고 천천히 건너기, 빨간불이

면 건너지 않기 등 횡단보도를 건널 때 주의해야 할 내용을 담은 전단지를 나눠주며 적극 홍보했다.

윤병태 시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어린이들을 위한 배려 운전 의식이 확산되길 바란다"며 "나주시는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 어린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철 기자

영광, 추모공원 명칭 주민 선호도 조사

13일까지 군 홈페이지서 온라인 투표로 진행

영광군(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김정섭)은 군남면 대덕리에 건립 중인 '영광군 공설추모공원(가칭)'의 명칭 선정을 위해 9월 4일부터 9월 13일까지 10일간 군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추모공원 명칭 공모를 통해 접수된 85편의 응모작들 중 1차 심사로 선정된 10편과 기존 사업 명칭인 '영광군 공설추모공원'을 포함해 총 11편의 명칭을 놓고 영광군 누리집(열린군정→참여마당→설문조사)에서 온라인 투표로 진행하며, 영광군은 조사 결과를 반영해 내부 검토 후 이달 중에 정식명칭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설문조사 대상 명칭으로는 ▲영

광군 천년의빛 추모공원 ▲영광 추모의 숲 ▲영원의 뜰 ▲영광 빛누리 추모공원 ▲천년기억공원 ▲영면원(靈眠園) ▲영광상사화추모원 ▲영광 위안의 숲 ▲하늘바람(꽃)추모공원 ▲하늘길영광추모공원 ▲영광군 공설추모공원 등 총 11편으로 1인당 2편씩 선택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해 추모공원의 명칭을 선정하고자 하오니, 설문조사에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친자연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군남면 대덕리에 건립 중인 영광군 공설추모공원은 2025년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경률 기자

무안군

청정갯벌 무안갯벌낙지

낙지의 고향!
무안을 말하다...